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민31:6-8)

주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요 동역자로 부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국 가을 초입에 들어 인사를 드립니다.

6개월만의 온가족 만남과 친밀함

그동안 떨어져 살았던 저희 아이들과 6~7개월만에 만났습니다. 같은 사역지에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계기로 부모님이 사역하는 곳이 우리 가정에 주신 사역지임을 알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지난 초기 아프리카에서 함께 예배 드리며 히 11장의 말씀에 감사하고 기도했던 때를 떠올리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서 행하시고 사면 돌려 진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로서 베트남 영혼들을 사랑하고 위해 기도하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잊지 않고 기도로 협력하고 다시오고 싶은 곳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곳 베트남 쌀국수로 시작해서 분짜 등 다양한 음식체험, 전쟁기념 박물관, 역사박물관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 및 역사의식을 갖게 하였습니다. 사이공 강, 재래시장 투어,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다니면서 도로들 마다 한가득이 이른 아침 일찍부터 이어지는 오토바이 행렬들을 보며 이곳의 문화와 부지런하고 성실한 베트남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1달이 채 안되는 시간 동안 함께 하다가, 이제는 부모만 이곳에 남겨진 느낌이지만, 감사하게 돌아가던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많이 성장했구나 생각이 들면서 축복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생비자와 대학교 1학년 입학

올 초부터 3개월씩 비자를 연장하며 언어공부를 이어가던 중 9월 신학기부터 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주어져 베트남어 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새로운 비자를 받기 위해 캄보디아에 다녀와야만 했는데, 마침 베트남, 캄보디아 지부로 새로 개편이 되면서 신임 지부장님 사역지를 다녀오게 되었고, 소중한 가족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최근 이곳의 비자법이 강화되면서 학교로부터 출국 전 전해 받기는 3개월 비자 밖에 줄 수 없다 하였는데, 감사하게도 아내와 더불어 1년 비자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이 비자를 받고 함께 환호성을 질렀던 그 쑥스러운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학교까지의 거리가 있어 운전이 부담이 있지만, 안정적인 거주와 꾸준한 언어공부, 현지 대학생들을 좀 더 가깝게 만나 교제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100명 만남, 100시간 도고, 100시간 교제

이곳 베트남 땅에 들어 오면서 '내 백성을 이끌어 주오'라는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 여전히 마음에 쟁쟁하던 차에 도전의 감동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여 우연치 않게 연이어 새로운 베트남 학생들을 만나는 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반의 동료분들에게 연이어 만나는 학생들을 소개해 주어 함께 교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알고 있던 분이 제가 다니게 된 대학교에 한국어학과 교수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부터 베트남 학생들을 가르치던 차에 청강을 말씀하셔서 좀 더 가까워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한 학년에 160명 정도 된다 하니 한국에 대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말씀보며 기도하던 중 제게 주신 감동과 도전을 주셨습니다. 1분기에 100명의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 100시간 기도하고, 100시간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인 줄은 알 수 없지만, 제게로 이끌어 주시는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몸살기가 있어 약국에 갔는데 두분의 약사분들이 한국말 배우기를 원하고, 베트남 말을 제게도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친구가 되는 놀라움도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베트남어 발음이 까다로워 개인 교습도 받으면 좋을텐데라는 마음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똑똑한 선생님들을 두분이나 붙여 주신 것 같습니다.

함께 배우는 베트남 문화 1



이번 편지부터 이곳 베트남 분들의 문화와 삶들에 대해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짧게나마 하나씩 하나씩 나누고자 합니다.

*쌀국수(뽕): 쌀국수는 문헌에 따르면 약 100년 전부터 즐겨 먹었으며, 베트남 음식에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주로 아침에 많이 먹고 저녁에는 간식으로 먹는데 지역에 따라 크게 약 17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라면보다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국물도 빼

나 고기를 오랫동안 우려낸 진국이라 영양 또한 높습니다.

소고기 쌀국수는 북부지방 하노이가 본고장인 '뽕보', 남부 호치민에는 '후띠에우'란 쌀국수가 있으며, 당면 같은 투명한 면에 돼지고기와 해물을 사용합니다. 물소고기로 만든 '뽕쩌우', 닭고기가 들어간 '뽕가', 10가지 맛이 난다는 '뽕짜오 탐껌' 등이 있네요.

쌀국수는 일반적으로 레몬과 고추(땡초)를 잘게 썬 것, 그리고 향채(고수 등)와 숙주나물, 상추 등 야채가 추가로 제공되어 함께 넣어 먹습니다. 국물을 드실 때는 그릇에 입에 대고 먹는 것은 실례이므로 작은 수저로 떠서 먹어야 합니다. 이번 주 근처에 가까운 곳에 아는 베트남 쌀국수 집이 있으면 "람언 쯔토이 뽕디아 뽕가"(닭국수 한그릇 주세요) 라고 하시며 음식을 주문하시고 드셔 보시지요. 아마 써비스로 "짜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동역자님, 오늘도 늘 강건하시고 복으로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길 두손을 모읍니다.

함께 기도해요

1. 주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동행 되어지는 일상
2. 베트남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찾을 수 있기를
3. 충실한 언어공부와 동역자들과 백백백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4. 자녀들의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문병학 이경미(예지 예담 예인) 드림